

카자흐스탄 장기집권의 원인과 유지기제(機制)

김주현, 이주희, 강부균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제1장 서론

제2장 장기집권의 원인

1. 법·제도적 원인
2. 정치적 원인
3. 경제적 원인
4. 대외적 원인
5. 사회·문화적 원인
6. 종교적 원인

제3장 장기집권의 유지기제

1. 법·제도적 기제
2. 정치적 기제
3. 경제적 기제
4. 대외적 기제
5. 사회·문화적 기제
6. 종교적 기제

제4장 결론

제1장 서론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은 질서의 재편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지역 공간들을 형성하였다. 구소련의 일부였던 중앙아시아도 지정학적 공간을 바탕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정치·경제적인 급변화로 새로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독립 후 체제전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과거 러시아의 중앙계획체제의 존속기간, 과거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여부, 지정학적 위치, 천연자원의 부존양 등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성장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초기 제도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크게 천연자원 수출국은 생산의 감소로, 농업국들은 민간부문의 성장률 저하로 나타났으나, 경제개방의 요인이 큰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의 가격에 경제를 의존해 온 국가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성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국가 원수들의 장기집권’과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이다.²⁾

1) 이경희, “중앙아시아 지정학의 변화와 정체성”, 『中東研究』, 제26권 1호, (2007)

2) 대체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의 정의는 1인 또는 소수 지배 엘리트가 국가를 통제하고 합법적인 규정이나 절차 없이 권력을 독점하고 폐쇄하여 민중을 정치, 경제에서 배제하고 반대세력에 대한 통제와 규제로서 정권을 유지하는 체제이다. ①F. Linz는 정치체제가 책임이나 다원주의(pluralism)가 아닌 것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고 지침이 될 만한 이데올로기가 없이 단지 사고양식(mentalities)만이 존재하며 단일지도나 소수집단지도가 분명치 않은 규정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체제로 보았다. Juan J. Linz,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ed),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Reading, Mass : Addison-Wesley, 1975), Vol.3, p. 264. ②A. Perlmutter는 권력이 중앙집권화되고 시민의 정치참여가 배제되어 정치과정이 국가의 통제와 강제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강제기구(the coercion machinery)가 고도로 발달된 정치체제를 권위주의 체제로 보았다. Amos Perlmutter, 『Modern Authoritarianism:」

출처: 박창규, op. cit., p. 89 재인용; *독립이라는 공통점에서 정치변동 과정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위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으로 귀결.

특히 개인지배체제가 형성·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중앙아시아식 권위주의 체제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구소련 말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과 체제 형성과정은 다른 구소련 국가들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민족주의가 분출되었지만 공산당과 민족주의 세력 간의 갈등 구도가 형성되지는 않았다. 둘째, 독립 당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정권 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점은 중앙아시아의 정치엘리트들의 형성 및 역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공산당이 몰락하거나 정치엘리트층에서 배제된 반면,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공산당 최고위층이 대통령직에 당선되었으며, 공산당은 명칭만을 바꾼 채 헤게모니 정당의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중앙아시아 정치체제에 있어 1인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며, 1인 지배체제의 면모는 이 지역 대통령들의 임기가 사실상 종신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⁵⁾

또한 맥파울(Michael McFaul)은 소련 붕괴 후 10년이 지난 2001년의 시점에서 탈소국가들 가운데, 발틱3국은 민주주의 국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독재 국가, 나머지 국가들은 반(半)독재 혹은 반(半)민주적 정권의 범주에 들어가며,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모두 권위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재범주화한 바 있다.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일부 국가들에서 ‘색깔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재민주화의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권위주의 혹은 반(半)권위주의, 혼성체제(hybrid regime)등으로 불리고 있다. 즉 대부분의 유라시아 국가들의 독립 후 초기 ‘민주적 이행(democratic transition)’이 ‘민주적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로 나아가지 못하고 퇴행하거나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⁶⁾

1991년 카자흐스탄 독립과 함께 집권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년째 장기집권 중이다. 이미 2007년 개헌으로 그의 임기 제한은 없어졌다. 2012년 임기가 끝날 예정이던 그는 이같은 조치로 사실상 영구집권의 길을 연 셈이다. 이웃한 우즈베키스탄 역시 1991년 독립 때부터 집권해 온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잇단 개헌으로 2014년까지 임기를 늘린 상태다. 카리모프는 헌법의 대통령 3연임 금지조항마저 무시하고 종신대통령-권력세습 체제를 만들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대통령은 1999년에 이미 종신 대통령을 선언한 바 있으며, 그의 사후 대통령이 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역시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니야조프의 통치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타지키스탄 역시 1991년에 취임한 이모말리 라흐모노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7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현재까지 집권중이다.

지난 2005년 키르기스스탄 혁명이 발발했을 당시, 키르기스스탄에 이어, 카자흐스탄과 다른 스탠국가에서도 반정부 시위 도미노가 일어날지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오히려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독재 도미노’⁷⁾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 12월 16일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독립한 카자흐스탄을 20년 가까이 장기집권해 온 나자르바

5) 김인성,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 분석”,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25집, (2007), pp. 340~341.

6) Michael McFaul, "Political Transitions: Democracy and the Former Soviet Union,"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28-1(Spring 2006); 강봉구, “유라시아 국가들의 권위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e-Eurasia저널』, vol.17, (2008.10), p. 4에서 재인용.

7) 경향신문, “우즈베크에 이어 카자흐스탄도 종신집권 개헌 추진”, 2009.9.15일 기사(검색일: 2009.10.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151803175&code=970207

예프 대통령은 2005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91%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삼선에 성공하였으며 개헌을 통해 '중신 대통령'의 길을 열었다. 최근에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입법화하여 선거를 치르지 않고도 평생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⁸⁾

과연 카자흐스탄에서 장기집권이 유지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구소련 붕괴 후 동국 국가들이나 발틱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과는 달리 카자흐스탄을 위시한 중앙아시아는 왜 권위주의로 나아갔는가. 또한 어떻게 권위주의가 공고화되었는가.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법·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대외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이상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본 논고의 목적이다.

논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상기의 여섯 가지 측면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장기집권의 원인을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장기집권을 공고화하는 유지기제를 고찰해 본 후 마지막 4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더불어 본고의 논지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현 정권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제2장 장기 집권의 원인

1. 법·제도적 원인

중앙아시아식 권위주의의 특징은 크게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한 권력적인 측면과 대통령 · 행정부 · 의회간 권력구도의 제도적 측면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중앙아시아 각국의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대통령이 국가 내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위치이며 이는 헌법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⁹⁾

1991년 12월 16일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독립한 카자흐스탄은 다른 소비에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립 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를 짊어지게 되었다. 독립 당시 카자흐스탄은 소비에트 연합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적인 다민족국가였다. 카자흐스탄 인구의 약 40%가 러시아인이었으며 교육받은 카작인들은 카자흐어보다 러시아어를 더 잘 구사하는 등 카자흐스탄의 엘리트 계층은 러시아에 밀접히 연계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헌법 제정 작업에 돌입했다. 독립 이후 1년 간 카자흐스탄 정부는 소비에트 시기의 유산 속에서 기능하고 있었다.

1993년 1월 28일 카자흐스탄의 첫 번째 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은 카자흐스탄을 민주적, 세속적, 단일 국가로 규정하였으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동등한' 삼권분립에 기초하였다. 1993년 헌법은 시민의 자유 및 독립, 절대적 권리 등을 명시함으로써 비소비에트적, 비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띠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이 담고 있던 정치적 성격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의회에 '언어', '국가 원칙', '사유 재산권' 등에 대한 개선안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프랑스 헌법 체계를 염두에 두고 1994년에 헌법 연구를 위해 프랑스에 전문가들을 파견하기도 하였다.¹⁰⁾

8) Eurasianet.org, "Kazakhstan: Nazarbayev President-For-Life Trial Balloon Draws Lots Of Darts", 2009.9.24일(검색일: 2009.10.22)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b/articles/eav092409.shtml>

9) 카자흐스탄 헌법 제40조는 대통령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최고의 직무 수행자로서 국가 대내외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국내외 외교관계에 있어 카자흐스탄을 대표한다. ②공화국 대통령은 국민의 일체성과 국가권력, 헌법의 균진함,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상징이자 보장자이다. ③공화국 대통령은 모든 국가권력기관의 조화로운 기능과 인민에 대한 권력기구들의 책임성을 제공한다. <http://www.kazembassy.org.uk/ambassador.html>

10) Azhar Kusainova and Gregory Gleason, 'Constitutional reform and regional politics in Kazakstan', *Nationalities*

1995년 8월 새로운 헌법의 초안이 만들어졌으며 90%에 가까운 지지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나자르바예프 헌법'이라 불리는 1995년 헌법 역시 삼권분립 원칙에 근거하였지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동등한' 권리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헌법은 행정부, 특히 대통령실의 권한을 가장 높은 곳에 두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다민족 국가적 성격을 의식한 언어 문제 등을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민족 화합에 주력한 모습을 보였다.¹¹⁾

이와 같이 독립 초기 국가 건설 과정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 민족 정체성 회복과 함께 다민족 정체성을 고려한 헌법 제정을 통해 그 기반을 다졌으며, 이후 1998년 말, 2007년 5월의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을 더욱 공고히하게 되었다. 특히 2007년 헌법 개정으로 초대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 규정이 철폐되면서 종신집권의 길을 열어 놓았다.

2. 정치적 원인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은 국가의 독립을 수호하고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카자흐스탄에는 독립 당시 카자흐인 인구에 거의 육박하는 러시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민족국가로서 민족간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였다. 또한 동시에 소비에트적, 또는 러시아적 정체성을 강요받아온 상황에서 카자흐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친러시아 정책을 펴면서 카자흐 민족의 주도권 장악을 서서히 진행하여 민족 분규 없는 안정적인 사회 기반을 확립할 수 있었다.¹²⁾

카자흐스탄은 네 단계에 걸친 정치발전과정을 거쳤다. 1992년에서 1994년에 걸친 자유화 과정, 1994-5년의 제도화 과정, 1995-6년의 행정부 강화 과정과 1997년 이후 권위주의 확립 과정, 그리고 2001년 이후 엘리트 분열과 갈등의 시기가 그것이다.¹³⁾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카자흐스탄은 참여와 경쟁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선거, 정당 등 정치제도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카자흐스탄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친 헌법, 선거법, 정당법 등의 개정 및 나자르바예프 일가의 경제계, 정관계, 언론 장악 및 야당 인사 탄압을 통해 건설적인 정치발전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그로 인해 집권 세력에 도전할 만한 의미 있는 야당이 부재하였고, 독립 이후 구체적으로 조직화된 당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3번의 총선을 거치면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집권여당인 누르오탄 당의 일당독재체제가 정립되었다.

3. 경제적 원인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이다. 이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강력한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0%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매년 7% 수준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괄목할만한 경제성과를 이룩하고 확고한 국민의 지지기반을 구축해왔다. 나자르바예프

Papers, Vol. 26, No. 3, 1998, p.532

11) Azhar Kusainova and Gregory Gleason, op. cit, pp.533-534

12) 김일겸, 「카자흐스탄의 정치와 경제」, 학민사, 2009, p.104.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민족주의 정책을 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족간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 2000년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비롯한 푸틴 대통령도 이 사건을 무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카자흐스탄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러시아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일겸, op. cit., pp. 120-121

13) Sally N. Cummings, 'Understanding Politics in Kazakhstan', www.demstar.dk, 2002, p.7

대통령이 先경제발전, 後정치자유화를 주장하며 개발 독재형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은 집권세력의 권위주의적인 통치행태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 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는 편이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개방경제정책과 사유화,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입과 에너지자원 개발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성장과 체제의 상대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중앙아시아는 물론 CIS전체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체제이행을 이룩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¹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은 1995년까지 경제침체를 거듭해 왔다가 IMF와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4-5%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로 진입하면서 2000년부터 국제 유가의 상승 및 가스, 비철금속과 같은 주요 수출품의 국제화 가격이 회복됨과 동시에 시장주의적 개방정책에 힘입어 2000~2007년간 연평균 10% 수준의 고도 경제성장¹⁵⁾을 이루었다. 물론 2007년 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신용경색 및 금융시장의 불안과 대외여건 악화 그리고 이로 인한 건설 부문 경기 위축으로 경제성장이 주춤하긴 했으나, 향후 수년 내에 카자흐스탄의 원유생산량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장기 경제전망은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의 석유 자원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이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소득향상으로 중앙아시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앙아시아의 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4. 대외적 원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등거리 외교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일조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등거리 외교를 벌여 왔다. 카자흐스탄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상하이협력기구의 일원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미군기지 철수를 요구하는 한편, 미국의 요청으로 이라크에 병력을 파견하기도 하였다.¹⁶⁾ 이로써 나자르바예프 정권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 CIS 지역의 잇따른 시민혁명 속에서도 장기집권을 이어갈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 등 서방 국가도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지닌 카자흐스탄과의 관계악화를 원하지 않고 있어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부정부패나 독재통치에 대해 침묵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처럼 CIS 지역에서의 민주화 혁명 발생여부는 정권의 부정부패나 독재통치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은 카자흐스탄 집권세력의 다소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에도 불구하고 정치안정, 경제발전 상황 등을 평가하며 ① 급격한 민주화로 인한 국내정세 불안 야기 우려 ② 카자흐의 정세불안이 중앙아 정세불안으로 이어져 대테러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고려 등으로 민주화 과정이 후퇴하지 않는 한 "점진적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자흐스탄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지원으로 민주주의, 인권 발전을 기치로 하는 OSCE의 2010년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고 서방측은 카자흐스탄의 선거법, 언론법, 정당법 등의 개정을 통한 점진적 민주화 필요성을

14) Лаумулин М.Т.(1997).Казахстан и Европей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 Казахстан-Спектр. -Алматы, No1-2.; 박상남, "중앙아시아 정치문화 변동: 정치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中東研究』, 제26권 1호 (2007), p. 282에서 재인용.

15) 이경희, op. cit., p. 312.

16) 안상훈, "카자흐스탄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5, p. 8.

http://www.koreaexim.go.kr/kr/file/nation/20090521_KZ_CountryReport.pdf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카자흐스탄 대선, 총선 결과 평가시 미흡한 점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다며 카자흐스탄의 개혁, 민주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동시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장기집권, 야당 탄압, 정부비판 금지 등에 대한 서방의 비난을 의식, 정치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선거활동 시 야당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야당 후보의 TV방송 출연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도 야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자제하고, 지난 선거에서도 자신의 업적과 공약에 초점을 둔 선거활동을 펼쳤으며, 타 후보에 대한 비난을 자제할 정도로 서구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5. 사회문화적 원인

(1) 소비에트 정치문화의 유산

카자흐스탄은 1991년 독립 이후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민족국가를 수립했는데, 이는 소련 체제의 해체로 가능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체제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민주주의의 도입일 것이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카자흐스탄 국가건설의 경로를 본다면, 서구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대체적으로 구공산권 출신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권력 독점 현상을 보이며 푸틴의 ‘주권 민주주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 이는 소비에트의 권위주의 체제라는 권력 기호가 여전히 카자흐스탄 정치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카자흐스탄의 정치적 문화는 소비에트의 정통성과 연결된다. 소연방 시절에 집권했던 공산당 지도자들이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고위 관료로 국민들을 통치함으로써, 소련식 권위주의적 특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셈이다.¹⁷⁾

이같은 특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이다. 카자흐스탄이 사실상의 일당지배체제를 수립하고, 권력의 정점에 사실상의 종신대통령을 지향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카자흐스탄 국가체제는 당서기장을 정점으로 하는 소비에트의 당-국가 체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제상의 유사성은 지도자들 개인의 선택이나 우연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도자들의 경험에 따라 소비에트식 통치스타일을 채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국가건설의 경험이 부재하여 나타난 일종의 경험적 답습의 결과이다. 한편, 강력한 대통령제가 형성된 보다 직접적인 이유로는 구소련 말기에 형성된 정치체도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는 정치체도의 개혁을 수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당제, 의회제, 비밀투표제, 복수후보제 등의 민주적 절차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 도입의 이면에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야만 하는 정치적 계산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구소련의 민주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개인권력의 강화를 위한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 일인지배체제 확립으로 귀결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고르바초프는 당서기장과 의회(최고회의)의장, 그리고 대통령을 겸함으로써 당권과 입법권, 그리고 행정권을 모두 관할하는 전대미문의 권력자가 된 것이다.¹⁸⁾

17) 정세진,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 건설과 민족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 정체성 특성에 고나한 소고”, 『e-Eurasia저널』, vol.14, (2009.5), pp. 24~25.

18) 김인성, op. cit., pp. 339~340.

명목상 의회(소비에트)를 최고권력 기관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당비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던 구소련의 전통과 의회와 집권정당 그리고 행정부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일개인에게 융합시켰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정치개혁 경험은 각 민족공화국들이 정치제도를 수립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¹⁹⁾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도입 자체가 바로 앞서 언급했듯이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고르바초프가 1990년 3월에 초대 소련 대통령을 겸임한 것을 흉내 낸 것이다. 사실상 현 카자흐스탄의 정치체제는 구소련 당시와 많이 닮아있다. 소련 말기와 독립을 거치면서 신생독립국 카자흐스탄의 정치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구소련의 전통적 요소에 새로운 제도변화가 더해지면서 기존의 정치문화와 새로운 제도변화가 혼합된 일종의 새로운 정치적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제도변화라 함은 비록 권위주의 정권성립으로 인해 제한적이긴 하나 다당제와 삼권분립, 직접선거 도입, 언론과 사회단체의 역할의 증진 등을 의미한다.

요컨대, 새로운 제도 도입과 변화가 정치문화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음과 동시에 기존의 구소련식 하향 전달식 정치문화는 국민의 수동성을 만들어낸 동시에 오늘날 권위주의적 장기집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제도에 의회제의 성격을 반영하여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의회를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대통령의 권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은 결국엔 모두 구소련 정치문화의 산물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씨족 정체성과 씨족 정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종족 정체성이나 종교 정체성보다 더 강한 정치사회적·경제적 동원력과 영향력을 가진 것이 ‘씨족 정체성(clan identity)’이다. 씨족은 친족관계나 가상의 친족관계가 핵심이 되는 비공식적인 사회조직이며, 그 속에서 친족관계는 집단성원들의 유대와 결속을 일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서 씨족은 ‘친족을 기반으로 확장된 수평적·수직적 관계망으로 구성되는 정체성 네트워크’라고 정의²⁰⁾할 수 있다. 씨족은 결혼, 친밀한 친구관계를 통해 그 범위가 확장되는데, 특별히 결혼은 씨족의 정치 및 경제적 힘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고의 메커니즘이 된다. 결혼으로 형성되는 ‘친족(kinship)’ 관계는 신뢰가 동반된 ‘강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¹⁾ 그러므로 씨족은 친족이 그 토대가 된 규범 및 신뢰의 문화에 근거를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혈연과 지역에 대한 집착이 만연되어 있었는데 심지어 소비에트 시대에도 농촌사회에서 지배적이었다. 피상적인 차원에서 씨족 정치의 지속은 소비에트 국가가 보여주었던 많은 실패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²²⁾. 소비에트가 해체 된 이후 카자흐스탄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하고 채택하는 짧은 이행기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씨족적 응집성은 ‘민족적 충성감’, ‘씨족에 기반한 동원과 지지의 메커니즘’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씨족 정체성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장기집권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없이 그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심리적 요인이자 나자르바예프가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유지 수단이다.

19) Ibid., pp. 43~44.

20) 강봉구, “현대 중앙아시아의 씨족정치: 키르기스스탄의 사례”, e-Eurasia저널, vol. 11, (2009), p. 49.

21) Kathleen Collins, "Clan Politics and Regime Transition in Central Asia", Cambridge, New York, 2006, pp. 25-26.

22) 김상철, “카자흐스탄 국가 정체성 형성과 특징”, 『e-Eurasia저널』, vol. 11, (2009), p. 38.

6. 종교적 원인

민족·종교 분쟁 없는 안정적인 사회기반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상당히 뒷받침 해주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들 중에서 전쟁이나 종교 및 인종 간의 갈등을 겪지 않은 유일한 국가에 해당한다. 이슬람국가이면서도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의 폭이 넓은 편²³⁾이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세력은 미약한 편이다. 카자흐스탄 집권세력에서도 종교의 영향력보다는 세속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터키 모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 등지의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자국 내 침투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특히 독립 이후 민족의식의 성장과 함께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230여개의 이슬람단체와 1개의 이슬람대학이 있다. 농촌지역에서도 이슬람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그 강도가 약하고 세속적인 편이다.

흔히 이슬람 문화라고 하면 떠오르는 차도르를 쓴 여인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기도시간을 알리는 사원의 스피커 소리도 들을 수 없으며, 도시 내에서는 오히려 러시아 정교회의 교회 건물이나 루터회 혹은 기타 다른 종파들의 교회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이 스스로 '이슬람 국가'임을 내세우고 있는데 반해서,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는 것도 그 차이점일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학자들은 '생활 이슬람' 혹은 '민중 이슬람'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즉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종교적인 역할보다는 생활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모슬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알라를 믿고 있지는 않다는 모순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수 있는데, 이들은 이슬람을 종교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전통문화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모슬렘들은 식사 후에는 신에게 혹은 조상에게 반드시 감사기도를 드리고, 차를 운전하다가도 사원이나 무덤을 보게 되면 핸들을 놓고 기도의 행위를 하며, 금식 기간에는 금식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이는 종교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에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소위 '세속화된 이슬람'이라고 불리는 온건적 형태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러한 생활 이슬람의 전통은 소비에트 체제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이 발생했을 당시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의 식민지였다. 혁명을 계기로 이슬람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세력과 소비에트 체제를 형성하려는 세력의 대결이 벌어졌었다. 이슬람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세력(급진 이슬람 세력을 의미함)은 광범위한 지역을 점령하며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들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소비에트 중앙정부는 급진 이슬람 세력을 탄압하면서 전통 이슬람 민족 문화는 보존한다는 '이중정책'을 취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중정책은 카자흐스탄이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예컨대, 1991년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카자흐 민족 우선 정책'이 시행되면서 카자흐의 민족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스타나의 경우에도 새로 건립되는 신도시 중앙에 웅장한 모스크를 건축하였다. 또한 나브루스(새해가 시작되는 날), 나하이드(한달 동안의 금식 후의 축제) 같은 이슬람 축제를 전통문화의 부흥이라는 명목 아래 부활시키고, 이슬람 사원의 재건축이나 성지 순례의 참여를 정부 주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을 '와하비'라고 부르며 경계하고 있으며,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와하비'라는 명목아래 처벌되고 있다.

23) '카자흐'는 현지어로 '엮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자유인'을 의미한다. 이들 '자유인'의 가장 큰 특징은 131개나 되는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의 국가공동체를 이루고, 뛰어난 화합정신을 보인다는 점이다.

나자르바예프는 소비에트 하의 ‘이중정책’을 오늘날의 카자흐스탄에 적용하여 반정부 세력들을 급진 이슬람세력으로 몰아붙여 견제하는 반면, 국민들에게는 급진 이슬람의 부정적인 측면을 내세우는 동시에 민중이슬람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²⁴⁾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정책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러한 견제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이 큰 역할을 하였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아프가니스탄같이 잘 살던 국가가 이슬람 급진주의자의 장악으로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바뀌었으며, 인권을 무시하고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위험한 나라로 비춰졌던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급진주의자들이 언제 자신들의 국가마저 위협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뿐 아니라 국민들도 이를 제어하길 원한다.

제3장 장기집권의 유지기제

1. 법·제도적 기제

1993년 1월 28일 제정된 카자흐스탄 헌법은 카자흐스탄을 민주적, 세속적, 단일 국가로 선언하고 있으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동등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91년 신생 독립국가의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정치엘리트들과 학계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사회전반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틀인 헌법을 형성하였다. 헌법은 대통령이 주장한 대통령중심제를 정치체제로 규정하였지만 이 독립헌법에서는 대통령 일인지배와 강력한 권위주의의 모습은 명시되지 않았다.²⁵⁾ 또한 새 헌법조항에는 대통령 후보자는 공식적 국가 언어인 카자흐어를 완벽히 구사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다른 민족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차단하였다.²⁶⁾

1993년 초 카자흐스탄은 전체 인구의 약 43%를 차지하는 7백 3십만 정도의 카작인들과 36%를 차지하는 6백 2십만의 러시아인들 및 우크라이나인(5%, 875,000명), 독일인(4%, 696,000명), 우즈베크인(2%, 354,000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학자들은 종종 카작인들과 중앙아시아인들이 카자흐스탄의 남부에 거주하고 슬라브인들은 주로 북부에 거주한다고 일반화하지만 실제로 이들 다양한 인종들은 카자흐스탄 전역에 걸쳐 복잡한 패턴으로 분포해 있다. 이러한 인구구성은 카자흐스탄의 정책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다민족국가인 카자흐스탄의 향후 국가모델 정립 논의에서 주요 논점이 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카작인들만을 대표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히 다른 인종에 위협이 되었으며, 새로운 헌법 전문에 '고유의 카작 영토'에 기초한 국가라고 명시하려는 시도는 실행되지 못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시민들을 카작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많은 비카작인들의 정체성을 침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헌법은 인종의 차이와 상관없이 카자흐스탄의 단결과 통합을 의미하는 문구를 찾으려고 했다.

이러한 민족정체성 문제와 함께 국가의 공식 언어를 규정하는 문제도 어려운 작업이었다. 1993년 헌법은 카자흐어를 공식 언어로 규정하였으며, 러시아어는 '국제적 소통'(international interaction)을 위한 언어로 정의하였다. 또한 다른 소수 언어들에는 자유롭게 발전할 권리를 주었다. 이러한 헌법 제정은 카자흐스탄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인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갈등 요인이 되었다. 때문에 1995년에 개정된 헌법 초안은 러시아어의 지위를 카자흐어와 대등한 위치까지 높이는 등 민족 화합을

24) 최소영, “이문화(異文化)관리”, 국제지역정보, 2003, PP. 74-75.

25) 이해정·박지범, “카자흐스탄 권위주의의 길”, 『中蘇研究』, 제33권 제2호, (2009 여름), p.192

26) 김일겸, op. cit., p.111

위한 시도를 하였다.²⁷⁾

1995년 8월 30일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는 90.5% 투표율에 89.1%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이른바 '나자르바예프 헌법'이라 불리는 1995년 헌법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선호가 상당히 반영되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된 헌법이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93년 헌법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여 의회에 개선안을 보내기도 하고, 자신의 개혁에 반하는 의회를 연거푸 해산하기도 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93년 12월 의회 해산에 이어 1995년 3월에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의회를 해산한 바 있다. 1995년 의회가 해산된 배경에는 의회가 경제개혁에 부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²⁸⁾ 대통령 중심제가 정착된 이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체제전환비용을 줄이고 다민족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²⁹⁾ 의회 해산 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95년 3월 민족회의를 소집하여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2000년 말까지의 임기 연장을 요청하였다. 1995년 4월 29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1.2%의 투표율에 95.46% 찬성, 3.76% 반대로 나자르바예프의 임기연장이 승인되었다.

1995년 4월 29일 나자르바예프는 1994년에는 프랑스에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프랑스 헌법 체계를 배우오도록 지시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정치체제는 구소련 말기의 정치제도를 이어받으면서도 민주주의적 정당성은 서구국가인 프랑스로부터 찾으려고 한 노력을 카자흐스탄 헌법에서도 엿볼 수 있다.³⁰⁾ 1995년 헌법은 최고사법기관을 대법원으로, 헌법재판소를 헌법위원회로 변경하여 삼권분립의 형태를 더욱 제도적으로 갖추었으며, 1993년 헌법에서 동등한 권력분립을 주장했던 내용을 삭제하여 의회의 권한은 사실상 상당히 약화되고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대통령은 의회가 심의할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긴급법안을 1개월 내에 심의, 종결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가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추천하는 총리에 대해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의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하는 등 상당한 권력을 부여받았다.³¹⁾

또한 의회는 상하 양원제로 바뀌어 상원은 47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7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하원은 77명으로 구성되어 그 중 67명은 지역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로 당의 명부에 의해 선출되도록 하였다.

1995년 헌법은 대통령 권력 강화와 함께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민족 감정을 고려하여 러시아어의 지위를 카자흐어와 좀 더 대등한 지위로 격상시켰다. 1995년 헌법은 '러시아어는 정부기관과 지방 행정기관에서 카자흐어와 더불어 공식적으로 사용된다'고 규정하였다.³²⁾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렇듯 민족 단결을 위해 유연한 헌법을 채택하여 권력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었다.

사실상 카자흐스탄 국가 건설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정체성 확립과 다민족국가로서의 화합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양립하기 어려운 쟁점 사안이었다. 헌법적으로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시민들의 동

27) Azhar Kusainova and Gregory Gleason, op. cit, pp534-535

28) 김일겸, op. cit., p.112-113

29) 이해정·박지범, op. cit, p.193

30)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체제는 많은 점에서 프랑스 5공화국을 참고하였다. 구소련 말기의 정치제도를 이어받으면서도 민주주의적 정당성은 서구국가인 프랑스로부터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며, 헌법에서 사용하는 많은 문장들도 역시 프랑스 5공화국의 문헌들을 많이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하여 드골은 베이유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집행권한은 국가의 수반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국가수반은 제 세력 위에 위치해야 하고, . . . 중대한 혼란이 존재하는 경우 선거에 부처 주권자의 결정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상황을 넘어서 중재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국가수반은 조국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 국가의 독립성 및 프랑스가 체결한 제조약의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지녀야 한다.” Lijphart Arend, “Parliamentary versus Presidential Gover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조해경 역, “내각제와 대통령제”, 『서울: 이진출판사』 (1999), p. 175에서 인용.

31) 김일겸, op. cit, 2009, p.114

32) Azhar Kusainova and Gregory Gleason, op. cit, pp535

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카자흐스탄을 단일(unitary) 국가라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과 함께 필연적으로 독자적인 전통과 문화를 확립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다.³³⁾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독립 초기 이러한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친러시아 정책을 통해 권력을 다지는 데 있어 갈등 요인을 시의적절하게 피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 1996년 11월 신언어법 등 일련의 언어정책을 통해 차츰 카자흐스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었다.

1998년 말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상·하원 의원들의 임기도 1년 연장하였다. 행정부 축소와 개편³⁴⁾을 통한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변화와 독립언론들을 통제하고 친 대통령 성향의 언론을 중심으로 한 언론의 개편,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의 개정은 지난 두 번의 의회해산과 더불어 대통령의 권력집중화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선거에서 7%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정당의 의회 진출이 금지되도록 하여 야권을 약화시켰다.³⁵⁾

2002년 승인된 정당법은 정당 창립 모임에 적어도 1천명 이상이 참가해야 하며, 각 지역에 적어도 700명의 당원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전 3천명이던 당원 수를 5만명으로 늘렸으며 설립 후 2달 내에 등록하지 못하고 2번의 연속된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투표수의 3% 이하를 획득할 때 정당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정당법 개정을 통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중소정당의 난립을 막고 야당의 성립을 견제하였다.

2007년 5월에 단행된 헌법 개정은 사실상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종신지배의 길을 열었다. 개정된 헌법은 초대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을 철폐하였는데, 그 근거로 신생독립국 카자흐스탄의 기초자로서 첫 번째 대통령의 역사적 역할을 고려하고, 정치·경제 개혁 완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네호로쉐프 의원은 이러한 결정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한 것이라고 하였다.(BBC 2007.05.18)³⁶⁾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예정대로라면 2012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헌법 개정으로 영구 집권의 가능성이 커졌으며, 대통령 임기는 다시 7년에서 5년으로 줄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원 47명 중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의원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하원은 30명 늘어 107명이 되었다. 그리고 하원 98명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9명은 카자흐 민족회의에서 지명되도록 하였다.

2. 정치적 기제

1991년 구소연방으로부터 독립 이후 지난 20년간 장기 집권에 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차례 개헌³⁷⁾을 통해 사실상 영구집권의 길을 열었다. 구소련 붕괴 전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공산당 서기장을 역

33) Timothy Edmunds, 'Power and powerlessness in Kazakstani society: ethnic problems in perspective', *Central Asian Survey*(1998), p.463

34) 1992년 19개의 부서와 19명의 장관을 98년 12개의 부서와 12명의 장관으로 줄이고 중앙관료의 25%를 해임하였다. 국가위원회 역시 이전 12개의 위원회에서 97년 2개의 위원회로 축소하였다. 1997년 5월에는 19개의 주(지역행정)를 14개의 주로 축소하고 5,000명 이상의 공직자를 해임하였다. 한편 국가안보위원회는 소비에트 시기 KGB의 이름으로 강력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었다. 이에 대통령은 1997년 4월 22일 내무부 소속 국가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안보위원회의 권력을 이전하였다. 행정부의 개편, 축소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대통령의 권력에 반하는 경제개혁 인사들을 제거한 다음 그 자리에 친 대통령 인사들을 이용하여 권력의 재편성을 이루었다. 이해정·박지범, op. cit, p.197

35) 이해정·박지범, op. cit, p.198

36) 김일겸, op. cit, 2009, p.169

37) 1993년 1월 최초 헌법 채택, 1995년 8월 대통령 권한강화, 상·하원 양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신헌법 채택되어 1998년 10월 대통령 선거일 변경을 골자로 하는 개정을 단행함, 이어 2007년 5월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초대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 규정을 철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종신통치를 법적으로 허용함.

임한 이후 1991년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1999년 재선에 이어 2005년 삼선에 성공하여 20년째 권좌에 머물러 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2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2007년 개정된 헌법으로 종신 대통령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표 1] 대통령 선거 결과 (1999년 1월 10일 실시)

	소속	득표 수	득표율(%)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인민동맹당	5,846,817	81
세릭볼신 압딜딘	공산당	857,386	11.9
가니 카시모프		337,794	4.7
앵겔스 가바소프		55,708	0.8
반대(Against all)		55,708	0.8
총계(투표율: 85.8%)		7,221,408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Kazakhstani_presidential_election,_1999

[표 2] 대통령 선거 결과 (2005년 12월 4일 실시)

	소속	득표 수	득표율(%)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누르 오탄	6,147,517	91.15
자르마한 투야크바이	카자흐스탄 정의를 위하여	445,934	6.61
알리한 바이메노프	약졸	108,730	1.61
예라실 아빌카시모프	인민공산당	23,252	0.34
멘스 엘레우시조프	자연환경당	18,834	0.28
총계(투표율: 76.8%)		6,744,267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Kazakhstani_presidential_election,_2005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99년 대통령 선거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인민당(RNPK)을 결성하고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하였던 전 총리 카제겔딘의 피선거권을 정부 허가 없이 정당을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무효화하고, 세금 포탈, 자금세탁, 권력 남용 같은 혐의를 씌웠다. 이후 카제겔딘 사건은 유명한 제임스 기펜³⁸⁾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1999년 3월 법령에 의해 대통령과 그의 가족 및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정보는 국가 기밀로 규정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였으며 대통령의 명예와 권위를 모욕하는 경우도 처벌 가능하게 하였다.³⁹⁾

1999년 나자르바예프는 그의 사위 라하트 알리에프를 세무경찰의 고위직에 임명하고 후에 다시 비

38) 기펜 사건은 카자흐게이트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 중심에는 상업은행인 머카토(Mercator)사의 사장 제임스 기펜이 있었다. 그는 1995년에서 1999년까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고문으로 일하였다. 그는 카자흐스탄의 '고위 관료'들에게 7천 8백만 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당하였다. 이것은 미국 석유회사들이 카스피해 지역의 유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의 고위관료는 사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발김바예프 총리로 알려져 있다. 김일겸, op. cit, 2009, p. 117

39) 김일겸, op. cit, 2009, pp.118-119

밀정보기관인 KNB의 고위직에 임명하였다. 라하트 알리에프는 텔레비전 채널 KTK와 '카라반 신문', '카자흐스탄 투데이'를 소유하였었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첫째 딸인 다리가는 '하바르'를 소유하고 있다. 또 다른 사위인 티무르 쿨리바예프는 카자흐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즈무나이가즈의 사장으로서 에너지, 금융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⁴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족벌주의는 카자흐스탄의 엘리트 계층을 비교적 균질적이고 동질적으로 유지한 동인이었다. 2000년까지 카자흐스탄 정치 무대에는 카제겔딘의 RNPK를 제외하고는 그렇다 할 만한 야당이 등장하지 못했다. 아자트(Azat), 인민대표(People's Congress), 아자마트(Azamat) 등 야당을 표방하는 정당들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세력 기반을 공고히 하지 못하였으며, RNPK마저도 카제겔딘 개인에 의해 유지되는 당에 불과했다.⁴¹⁾

그러나 2001년 카자흐스탄 민주적 선택당(Democratic Choice of Kazakhstan, DCK)의 등장으로 카자흐스탄은 주변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경제적 동인에 바탕을 둔 야당의 등장은 물론, 상당히 균질적이던 카자흐스탄 지배 엘리트 계층 사이의 권력과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분열의 시작을 보게 되었다. DCK 당의 발기인들은 카자흐스탄 경제계 거물들과 정관계 고위직 인사들이었다. 이들도 역시 상당수가 소비에트 노멘클라투라 출신의 정치, 경제 엘리트들이었지만 카자흐스탄 사유화 과정 속에서 획득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당을 창설하고 조직적으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항하기 시작하였다.⁴²⁾

DCK 창당에 대해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 DCK의 창당 멤버인 부총리 잔도소프와 국방부 차관 예르틀레소바, 노동부장관 알리한 바이메노프 등을 해임하였으며 다른 각료들도 DCK와 관련이 있으면 제거되거나 전보되었다. 이후 DCK 및 반정부 정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계속되었고, 2002년에는 새로운 당의 결성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정당법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결국 DCK는 2005년에 법원에 의해 해산되었다.

[표 3] 카자흐스탄 야당 연표

정당	설립 연도	당원 성향	세력 기반	목표
아자트(Azat)	1991	전통 카작인,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	자금 부족, 조직력 약함	문화, 언어에 대한 카작 민족주의 선전
인민대표(People's Congress)	1991	지식인	자금 및 후원 결여	민족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중도파
아자마트(Azamat)	1996	도시에 한정된 제한적 입당 기준	자금 및 후원 결여	친민주주의, 반나자르바예프
공화국인민당 (Republican People's Party of Kazakhstan)	1998	지식인, 반체제 인사	카자흐스탄 외부의 독립적인 재정 기반, 서구 지원	친민주주의, 반나자르바예프

40) 김일결, op. cit, 2009, pp.120, 123

41) 김일결, op. cit, 2009, pp.119

42) 김일결, op. cit, 2009, pp.122, 129

카자흐스탄 민주선택 (Democratic Choice of Kazakhstan, DCK)	2001	관료, 상공인, 올리가르히	상당한 재정적 지원 및 후원	법, 경제 개혁 및 민주화. 급진 야당
악 졸(Ak Zhol)	2002	온건 DCK	상당한 재정적 지원 및 후원	정부 정책 비판, 건설적 야당
카자흐스탄 정의를 위하여(For a Just Kazakhstan)	2004	야당 연합	다양한 야당 세력으로 부터의 지지	자원 동원, 2005년 대통령 선거 후보 지원

출처: Barbara Junisbai·Azamat Junisbai, "The Democratic Choice of Kazakhstan: A Case Study in Economic Liberalization, Intraelite Cleavage, and Political Opposition", *Demokratizatsiya* (2005)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집권 여당인 오탄 당은 2006년 7월 다리가가 이끌던 아사르 당과 합당한 데 이어 11월에는 시민당, 농업당과도 합당하여 12월에 당명을 누르 오탄으로 바꾸고 당원이 75만에 이르는 거대 야당으로 거듭났다. 또한 2007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 전 정당 연합 구성을 금지함에 따라 중소정당은 의회 진입 장벽인 투표율 7%를 획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선거 결과 누르 오탄당이 카자흐 민족회의가 지명하는 9명을 제외한 98석의 의석 수를 모두 차지하는 일당 독재 체제가 시작되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카자흐스탄 하원을 누르 오탄 당의 제 2 지부라고 칭하기도 한다. 현재 나름 온건, 급진 야당을 표방하고 있는 정당들은 사실상 친정부 성향을 내비치고 있으며, 국민적 지지나 자금력이 부족해 건설적인 야당의 역할을 기대하기란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다.⁴³⁾

[표 4] 의회 선거 결과 (2007년 8월 18일 실시)

정당	득표 수	득표율(%)	의석 수
누르 오탄	5,174,169	88.05	98
범 사회민주당	271,525	4.62	0
악졸	192,155	3.27	0
사회민주당	93,023	1.58	0
인민공산당	77,274	1.31	0
애국당	44,175	0.75	0
Rukhaniyat Party	24,308	0.41	0
총계(투표율: 64.56%)			98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Majilis>

43) 최근 경제 위기를 이용하여 일부 반대파 정당들이 내각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대항할 정도의 세력은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집권세력 내 권력집중 방지를 위해 수시로 개각을 실시하고 언론도 적절히 통제하고 있어 정치적 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2년 총선을 앞두고 2009년 10월 2대 야당인 Azat와 국가사회민주당(OSDP)이 통합하였다. 김진영, '카자흐스탄', e-Eurasia vol. 20,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표 5] 현 정당 현황

정당	특징
누르 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친정부 성향의 시민당과 아사르가 합당하여 탄생 - 2007년 의회 선거 결과 하원 107석 중 98석 차지하여(나머지 9명은 카자흐 민족회의에서 지명) 하원을 누르 오탄 당의 제 2 지부라고 칭하기도 함 - 2008년 현재 74만 명의 당원이 활동

- 친정부 정당

정당	특징
Rukhaniyat(Rebirth)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등록된 소정당 - 친정부 성향의 '알틴샤쉬 자가노바'(작가, 방송인)가 당수
애국당 (The Party of Patriots of Kazakhstan, PP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설립된 소정당 - 1999.1 대선에서 나자르바예프와 함께 후보로 나선 바 있는 '가니 카시모프'가 당수 - 2008년 현재 13만 명의 당원이 활동

- 온건 야당

정당	특징
카자흐스탄 정의를 위하여 연합 (Coalition for a Just Kazakhst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비판 성향이 강한 '마크수트 나리크바예프'가 당수 - 2005년 초 대선 승리를 위해 DCK와 RNPk, 약졸의 급진 파들이 '카자흐스탄 정의를 위하여'(For A Just Kazakhstan, FJK)당을 창당
약졸(Bright Pa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대선 후보로 나선 바 있는 '알리한 바이메노프'가 당수 - '건설적 야당' 주장 - 2005년 대선을 앞두고 보다 급진적인 야당성향의 나구즈 약졸(True Bright Path,-현재 활동 없음)로 분열 - 2008년 현재 15만 명의 당원이 활동
카자흐스탄 사회민주당 (The Kazakh Social Democratic Party Auy, Vill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창당, '가니 칼리예프'가 당수 - 농업 발전과 농민 보호에 주력 - 대통령, 누르 오탄 당과 협력
공산당 (Communist Party of Kazakhstan, CP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10월 창당, '세릭볼신 압딜딘'이 당수
카자흐스탄 인민공산당 (The Communist People's Party of Kazakhstan, CPP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라디슬라프 코사레프가 당수 - 7만 당원 중 30%가 30세 이하의 청년들로 구성 - 누르 오탄 당과의 협력 필요성 인정

- 급진 야당

정당	특징
아자트 Azat (former Naghyz Ak-Zhol, "True Bright Path")	- 2005년 악졸에서 분리된 나구즈 악졸 당이 전신 - 악졸을 행정부의 꼭두각시라 비판하며 진정한 야당임을 주장 - 아자트-2012 계획을 통해 다음 의회 선거 공략
범사회민주당 (All-National Social Democratic Party, NDSP)	- '자르마한 투야크바이'가 2007년 결성. 투야크바이의 지도 자적 이미지 결여로 지지율 낮음

출처: Anthony Clive Bowyer, "Parliament and Political Parties in Kazakhstan", Silk Road Paper(2008)

3. 경제적 기제

중앙아시아의 최대 산유국이자 광물자원 보유국인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개혁·개방 정책과 원유, 가스 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2000-2007년간 연평균 10% 수준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표 6] 카자흐스탄의 2000년대 경제 성장률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성장률	9.8	13.5	9.8	9.2	9.6	9.7	10.7	8.9	3.2

[표 7] 카자흐스탄의 자원보유 현황

	석유	가스	크롬	우라늄	아연
매장량	398억 배럴	3조 입방미터	290백만톤	437천톤	30백만톤
점유율(세계순위)	3.3%(9위)	1.7%(11위)	35.8%(1위)	16.7%(2위)	13.6%(3위)

출처: 2007년 확인 매장량기준, BP통계

앞으로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고도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나자르바예프 정권은 이미 1996년 당시 호텔이 두 개 밖에 없던 아스타나로 수도이전을 단행했으며, 평균임금 및 연금, 그리고 장학금 등을 두 배로 올리고 경제규모를 2.5배로 증대시키겠다는 집권 목표를 위해 노력중이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시장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젊은 경제 관료 배출 메커니즘의 확보, 특정 외국기업에 대한 의존 완화책 구사 등 경제부문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식 경제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강력한 엘리트 경제관료 확보책에 따라 서구권 대학에서 교육받은 40대 젊은 관

료들이 주요 경제 포스트에 포진, 글로벌 표준에 맞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장기집권은 국제유가 상승을 통한 외부환경을 은총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개발독재와 변화를 적절히 배합하여 활용할 줄 아는 나자르바예프 개인의 능력도 부인하기 힘들다. 이렇듯 지금까지 성공을 거둔 개발독재형 장기집권이 향후에도 이같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다소 주춤한 경제를 회복하면서 안정된 고도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표 8] 카자흐스탄 주요거시경제지표 (단위: 백만달러, %)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9.6	9.7	10.7	8.9	3.2
재정수지/GDP	-0.2	0.6	0.8	-1.7	-2.1
소비자물가상승률	6.9	7.6	8.6	10.8	17.0
경상수지	335	-1.056	-1.999	-7.333	6.978
경상수지/GDP	0.8	-1.8	-2.5	-7.1	5.4
수출	20,603	28,301	38,762	48,351	71,971
수입	13,818	17,979	24,120	33,260	38,452
외환보유고	9,277	7,070	19,127	17,629	19,401
총외채잔액/GDP	76.0	75.3	91.1	93.7	82.9

출처: IFS, EIU 및 NBK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 잠재력 및 자원수출을 통한 자생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BP의 통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확인 석유매장량은 2008년 현재 약 400억 배럴(세계9위), 가스의 경우 105.9조 입방피트(세계11위)로 Tengiz유전(미국 Chevron 주도), Karachaganak 유전을 비롯하여 아직 생산이 시작되지 않은 동국 최대의 Kashagan유전(이탈리아 주도)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에너지부문의 성장잠재력은 여전히 높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2000년부터 석유 수출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입의 일정액을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말 기준 225억 달러의 국가오일펀드 자산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국가오일펀드 및 외환보유고를 합쳐 약 42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통해 통화를 적절히 방어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외환보유고 '수입개월수'(외환보유고/연간수입액x12)는 6개월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다. 바로 이같은 경제적 동인이 세계 주요국들의 러브콜을 이끌어내었고, 최근의 경제불안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 안정이 지속되는 원동력이다.⁴⁴⁾

이밖에도 카자흐스탄 정부는 산업 다변화 전략을 통해 고도의 경제 성장을 꾀하고 있다. 정부는 '2015 산업혁신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석유화학, 건축자재, 식품가공, 물류, 제련, 섬유, 관광 등의 분야로 산업 다변화를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각 부분에 걸친 국영지주회사를 설립하고 30대 지도적 기업 선정 등을 통해 비자원 분야 육성 및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발효된 신조세법은 산업다변화 정책추진을 위해 채굴 분야 세금 부담을 늘리는 대신 비채굴 분야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2006년 국가기간산업을 총괄하는 '삼륙'과 비에너지분야 산업투자를 담당하는 '카지나'를 운영해오다가 2008년 10월 이를 통합하여 '삼륙카지나' 펀드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을 추진 중에 있다.

44) 풍부한 에너지 자원은 국가가 세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석유로 인해 직접적인 수입을 창출토록 한다. 이는 세입에 의존도가 큰 국가보다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정책결정과 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해정·박지범, op. cit, p 198.

카자흐스탄 역시 최근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경제 성장률이 3.2%로 낮아졌고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라 신용경색 등의 국가 경제 성장의 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9년 3월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밝혔듯이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정 해소에 중점을 둘 것이며 동시에 산업다변화 전략을 펼치고 이를 위해 인프라 건설이 지속될 것이다. 벌써 금년부터 이무 경제 및 금융안정화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금융분야에 40억불, 부동산 분야에 30억불, 중소기업 활성화에 10억불, 농업 및 인프라에 각각 10억불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4. 대외적 기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의 전통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되 정치, 경제적으로 지나친 대러시아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중국, 미국, EU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실리 위주의 균형 잡힌 다변화 외교(Multi-vector diplomacy)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정치·경제·군사·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최대의 파트너로서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다. 카자흐스탄 독립 시에 비해 감소했다고는 하나 전체 인구의 26%가 러시아인이며, 카자흐스탄에서 볼 때 러시아는 최대의 무역상대국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데, 러시아는 유럽에 공급하기 위한 천연가스를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이지만 국내의 석유수송 인프라의 미정비와 정유능력 결핍으로 인해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에 공급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⁴⁵⁾ 더욱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의 3개국은 2010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관세동맹을 체결하기도 하였다.⁴⁶⁾

카자흐스탄은 미국, EU 등 서구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시장경제로의 안정적 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러시아의 전통적 이해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NATO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군사협력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고도 경제성장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각종 국제기구에의 참여,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자국의 위상강화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도로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를 출범시키며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확대를 시도하였고 미국, EU 등 서방의 지지로 CIS권 최초로 2010년 OSCE 의장국을 선임할 것이다. 2009년 2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체제를 탈피하여 새로운 국제결제 통화도 제안한 바 있다. 이밖에도 매년 유라시아 미디어 포럼, 매3년마다 세계·전통종교지도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위상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핵 비확산, 국제테러리즘, 종교적 극단주의, 마약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1993년 자국의 핵무기를 가진 포기하여 비핵화의 모범사례로 부각시키면서 2006년 ‘중앙아 비핵지대화 조약’을 주도하였고 NPT, PSI, GICNT(핵테러 방지 글로벌구상) 회원국으로서 비확산 분야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테러리즘 및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적극적 입장은 다민족·다종교 국가로서의 고민, 아프간·파키스탄 등으로부터의 극단적 원리주의 및 테러리즘 유입으로 인한 안보 및 사회 안정 저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된 것이라 평가된다.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리더로 급부상한 카자흐스탄은 양자 및 다자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주변국들과의 우호협력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역내 안보 및 경제통합을 위한 주도적

45) 김진영, '카자흐스탄', e-Eurasia vol. 20,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46) 2009년 6월 초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은 관세동맹의 형태로 WTO에 동시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Ibid.,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단, 전통적인 지역강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라이벌 의식은 지역통합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5. 사회 · 문화적 기제

나자르바예프는 어떻게 씨족적 요인을 장기집권의 공고화에 이용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카자흐스탄에서는 씨족적 요인이 어떤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가. 카작 칸국(카작의 전통사회)을 구성하였던 루-부족들은 내부적으로 세 개의 ‘쥬즈(Zhuzs)’ 혹은 ‘호라테(Hordes)’로 불리는 세 개의 루-부족 통합체로 분할되어 있었다. 이 3개의 쥬즈는 자치권을 가진 연합체로서 각각 세 개의 다른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서쪽 카자흐스탄 지에는 Kishi Zhuz(small Horde)가, 북쪽 또는 북동쪽 지역은 Orta Zhuz(Middle Horde)가, 그리고 남동쪽 지역은 Uly Zhuz(Great Horde)가 분할 차지 한 것을 의미한다.

카작의 쥬즈는 카작 칸국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이에 따른 각 지역의 유목생산 형태 및 카작 칸국 형성 이전의 역사 정치상황 등에 기초하여 15-16세기에 형성되었다. 또한 카작 쥬즈는 루-부족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 통합체이며, 이는 18세기 초에 개별적인 정치적 실체로 분리되었다라고 카작 문헌에 기술되어 있다. 루-부족들의 통합체인 쥬즈는 각기 카작인의 기출를 형성한 규모가 큰 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⁴⁷⁾

카작 칸국의 기초를 형성한 대쥬즈는 위순 부족을 중심으로 캅르, 알반, 수안, 둘라트, 잘라이르, 으스트, 소탁트 등의 11개 부족들로 구성되었다.⁴⁸⁾ 대 쥬즈 카작인들은 칠하지역의 추와 탈라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카쉬호 남쪽, 일레강으로부터 시르다리아까지 펼쳐진 광활한 지역에서 유목하였다. 하계 목초지는 주로 알라타우 주위였고, 동영지는 우와 탈라스강 유역 또는 시르다리아강 주변이었다. 중쥬즈는 아르근 부족을 중심으로 쿱착, 나이만, 쿵으라트, 케레이 등의 5개 부족들로 구성되었고 수적으로 세쥬즈 중 가장 우세하였다. 중 쥬즈 카작인들의 동영지는 시르다리아, 카라타우 지역 및 발카쉬 호수 북쪽 지역이었다. 한편 하계 목초지는 토블, 예슬, 토르가이, 이르티쉬, 사르수 강 유역 및 중부 초원지역이었다. 소쥬즈는 기본적으로 알름울르, 바이울르, 제트루라는 3개의 루 통합체였다. 소 쥬즈 카작인들은 시르다리아강 하류 및 아랄해 지역 그리고 카스피해 북쪽지역에서 유목하였다. 소쥬즈 카작인들은 겨울에는 시르다리아 하류지역, 으르그즈와 토르가이 지역, 또한 여름에는 우랄지역, 토블강 상류지역 등지에서 유목생활을 하였다.⁴⁹⁾ 이같은 쥬즈 분할 체계는 오랜시간 강화되어져 왔고 각 쥬즈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이후까지도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부의 힘을 조절하기 위해 서로 대결해왔다.⁵⁰⁾

앞서 설명한 쥬즈라는 씨족정치의 기원은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 및 사회적

47) 대 쥬즈는 위순 부족을 중심으로, 중쥬즈는 카작 칸국의 중부지역에서 유목했던 부족들이 아르근 부족을 중심으로, 소쥬즈는 카작 칸국의 서쪽지역에서 알른 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대 쥬즈를 위순, 중쥬즈를 아르근, 소쥬즈를 알른연맹이라고도 한다.

48) H.B Paksoy, "S.V. Togan: the Origins of the Kazaks and the Ozbek", Central Asian Survey (Vol.11, No.3, 1992), p. 92.; 손영훈, "카작 칸국(15-18C)의 사회 구조 : 유목사회 봉건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1997, p. 38에서 발췌 재인용.

49) Ibid., pp. 37-38에서 발췌 재인용.

50) Chaimun Lee, "Languages and Ethnic Politics in Central Asia: The Case of Kazakhst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UME 11, Number 1, 2004, p. 103.

카작 쥬즈의 출현시기와 그 형성과정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학자들간에 논쟁이 되고 있다. 첫째, 쥬즈의 사전적 의미를 강조하며 이 용어가 뜻하는 ‘백(白)’이라는 수 개념이 군사적 중요성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확대되어 쥬즈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의한 부족 조직화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두 번째, 튀르크 및 몽골 유목 국가의 분할통치의 전통에 의해 세 개의 쥬즈로 분할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작 칸국 수립 이전의 역사-정치상황과 칸국의 자연지리적 특성에 따라 각 부족의 유목지역을 근거로 형성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과정을 해석하고 분류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카자흐스탄 국가 공무원(소위, 정부내 권력자, 고위 관료들)들의 선출과 출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씨족적 요인은 공무원들의 선출과 출세, 정치적 영향력, 정치적 독립성 및 자율권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정통성의 기반을 제공한다. 즉 오늘날 씨족 정치는 공무원들의 권위, 권력, 사회적 지위, 그리고 권력 유지의 수단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개인적 권력을 확립하는 데 있어 씨족적 요인은 개인적 이득이 계산된 정책들을 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경쟁세력을 배제하는데 기여했다.⁵¹⁾

세 개의 쥬즈는 정부 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달랐다. 오늘날 정부를 지배하는 핵심세력은 대쥬주(나자르바예프와 그의 가까운 친인척들)와 소쥬즈이다. 상대적으로 중쥬즈는 소비에트 연방시절 Kunaev 이 당서기장으로 재임할 때나, 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재임할 때나, 큰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늘 복종적 연합체로 약하게 존재했다. 다시 말해, 카자흐스탄이 독립할 당시 중쥬즈의 정치 엘리트와 지식인(intelligentsia)은 가장 인기있었고 중쥬즈는 가장 도시화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부내에서 높은 관직을 차지하지 못했다. 나자르바예프는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족을 이해했고 균형적 인사정책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중쥬즈의 대표자들을 곁에 두었다. 예컨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96년 2월 22일 법령을 포고하여 Erik Asanbayev를 당시 카자흐스탄의 부통령이었던 Erik Asanbayev를 독일 대사로 강등시킨 후, 중쥬즈 출신인 Akezhan Kazhegeldin을 총리로 임명(1994.10.12-1997.10.10)했다. 이 모든 것들은 대통령의 눈에는 모든 쥬즈 출신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나자르바예프의 이같은 눈가림은 사실상 아무것도 증명해보이지 못했다. Kazhegeldin은 중쥬즈 내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없는 'the Uak'민족이었기 때문이다. 그저 균형 등용이라는 구색만 맞추어 반발세력의 형성을 막기 위함이었다.

소쥬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소쥬즈도 중쥬즈보다는 상황이 나왔지만 대쥬즈 출신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대중들의 생각이다. 소쥬즈 출신의 정부관료들은 그러므로 카자흐스탄에서는 독립적인 정치적 힘을 가진 대통령의 반대세력도 없고 합법적인 경쟁자도 없다. 이같은 나자르바예프를 비롯한 대쥬즈 출신들의 권력독점 현상은 카자흐스탄이 막 독립한 초기에는 덜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고 있다.⁵²⁾

실례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에 반대하는 경제개혁 인사들을 제거한 다음 그 자리에 親대통령 인사들을 등용하여 권력을 공고화하였다. 대통령 일가는 정보 통제를 위해 언론을 장악하였으며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자 경제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운영하고 통제하는 '카즈무나이가즈(KazamunayGas)' 또한 장악하였으며 주요 기업들과 산업시설들을 소유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장녀는 주요 언론기관인 크발 국가뉴스청(the Khabar State News Agency), 크트크 TV 채널(TV Channels KTK), 라캣 TV 채널, 루스크예 라디오(Russkoe Radio)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카자흐스탄의 언론 통제의 기재를 모두 보유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첫째 사위인 알리에프(Rakhat Aliev)는 의사출신이지만 조세 정책부, 보건 복지부 등의 관료생활을 거쳐 원자력 에너지부에서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하였으며 올림픽 준비위원, 카자흐스탄 축구연맹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로 망명한 길러(Boris Giller)의 언론을 매입하여 언론에도 진출하였다. 아울러 둘째 사위인 쿨리바예프(Timur Kulibayev)는 소비에트 시기부터 대통령 측근이었던 쿨리바예프(Askar Kulibayev)의 아들이자 국가 예

51) Nurbulat E. Masanov, "The role of clans in Kazakhstan today", Jamestown Foundation, Prism Volume: 4 Issue: 3, February 6, 1998

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5Btt_news%5D=20207&tx_ttnews%5BbackPid%5D=220

52) Ibid., pp. 340~341.

너지원을 통제하고 파이프라인을 독점하고 있는 카즈무나이가즈(KazamunayGas)의 회장으로 중국국영 석유(CNPC), 러시아 석유회사 루크오일(Lukoil)과의 주요 사업을 체결한 에너지 분야의 핵심 인물이다. 이외에도 그는 에너지 영역을 넘어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에도 진출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 일가와 그 측근들은 사회전반을 장악하고 운영하고 있다.⁵³⁾ 이들은 언제나 경제 및 언론 메커니즘의 통제를 통해 국가 정책을 현 권위주의 정권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었다.

반면에 씨족 정치의 내재된 속성 가운데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데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경제적 동인으로 인해 이같은 속성들이 상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테면 씨족 정치가 정치적 경쟁과 경쟁의 제도화, 그리고 정권의 통치형태에 전반으로 침투해 들어옴으로써 선거를 통한 경쟁원리가 왜곡되고, 권력 분립이 훼손되었으며, 정당, 시민사회 및 자유언론을 통한 참여가 어렵게 되고, 국가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선거의 경우 자신의 가족 혹은 씨족 네트워크를 통하여 투표를 동원하고 그 반대급부로 자신의 친족들을 지역이나 정부의 장에 임명해주기도 한다. 물론 이들 역시 반대급부를 통해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 든다. 결과적으로 국민과 주민이 아니라 씨족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회활동은 ‘부족 당파주의(tribal factionalism)’로 전락한다.

국가 정책 결정 특히 자원 배분 시에 국민과 국가이익이 아니라 특정 씨족의 이익을 고려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국가 자원 분배의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⁵⁴⁾ 상기 언급한 반대급부를 고려해 볼 때 만약 이들에게 제공할 재원이 지속적으로 창출되지 않는다면 충성과 지지적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또한, 씨족에 기반한 정치는 정치, 경제적 자산을 두고 씨족간에 갈등을 야기시킨다. 심지어 씨족 사이에 자신들의 이권보호 및 추구를 위해 무력적인 충돌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⁵⁵⁾ 실제로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씨족에 분배 가능한 지하자원도 부족하고 산업시설도 거의 전무한 조건에서 유력 씨족망들에 의존하는 씨족정치가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에너지 자원의 개발로부터 지속적으로 국부가 창출되기 때문에 유력 씨족들에게 배분할 몫이 존재하고, 씨족들은 이해관계에서 일종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었기에 권위주의적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은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의 씨족이 가지는 의미란 전통적 카작 사회에서는 유목공동체의 기본조직이자 경제공동체를 위한 단순한 연합에서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연방이 붕괴된 정치 및 경제 변형기, 그리고 독립된 오늘날까지 이르면서 씨족은 정치 및 경제 엘리트들 사이에 권력쟁취, 정치적 후원 관계가 얽혀있는 정치공동체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씨족은 자신의 신분(소속), 지위, 경제력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일종의 ‘사회적 보장’ 역할을 해온 것은 공통된 점이라 하겠다.

한 예로, 소비에트 연방시절 공산당 제1서기였던 Dinmukhamed Kunaev는 대쥬즈의 Sty민족이었다. 대쥬주 구성원들은 모두 그를 ‘자기 자신(their own)’처럼 인식했다. 반면에 중쥬즈 사람들은 그를 ‘자기 자신’으로 인식⁵⁶⁾하지 않았다. 이는 ‘나의 뿌리’, ‘우리 집단’과 같은 소속감에 집착을 보이는 것이며, 소속에 대한 카자흐스탄 하나의 연방을 강조하던 소비에트 시기에도 존속해 온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이같은 뿌리 깊은 씨족적 전통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씨족적 응집성을 기반한 민족적 충성감, 그리고 동원과 지지의 메커니즘-인 동시에 카자흐스탄 정부를 구성하는 지도 엘리트층의 권력기반이기에 앞으로도 큰 변동이 없어 보인다.

53) 이해정·박지범, op. cit, pp. 199~201.

54) 강봉구, op. cit., p. 52.

55) Kathleen Collins, op. cit., p. 21.

56) Nurbulat E. Masanov, op. cit.

6. 종교적 기제

앞서 언급했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이슬람 이중정책은 그의 장기집권을 위한 종교적 기제의 핵심이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독립 이후 헌법에 종교적 자유를 명시하였으며, 종교 화합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이같은 강력한 ‘종교 화합 정책’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은 세계인의 주목을 끌고 있다. 카자흐스탄 자신도 중앙아시아에서 종교간 대화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종교 화합 정책 덕분에 2001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하는 역사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었고 아울러 2003년과 2006년에는 다민족 국가인 점에 착안하여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추구하고 각 종교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세계 종교인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는 9.11 이후 대립의 양상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이슬람권과 기독교권 간의 상호 이해증진을 통해 중동 이슬람·유대교 분쟁해결 등을 희망하는 세계 종교계 인사들의 소망을 표명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도 기여 하였다. 다민족 간의 특성인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및 정부정책으로 안정적 사회분위기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수의 러시아계⁵⁷⁾를 자극하지 않는 정책을 쓰면서도 카자흐스탄 전통과 언어를 우대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전체에 위치한 230여 개의 이슬람 사원 중 70%가 우즈베키스탄에 위치⁵⁸⁾해 있을 만큼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본산지이다. 강력한 이슬람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자국민들에게 이슬람을 권장하면서 자국민에 대한 타종교의 포교활동을 금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에 비해 급진주의적 이슬람의 활동도 활발한 편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종교관련 갈등이 많이 야기된다. 물론 우즈베키스탄도 전체 인구의 10% 정도 되는 러시아인들을 아우르기 위해 그들에게는 정교를 권장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카자흐스탄처럼 종교 포용정책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정치적·역사적·문화적 배경에서 러시아와의 절연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다. 즉 러시아정교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것은 폐쇄성이 짙은 우즈베키스탄 민족이 선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구책이기 때문이다.⁵⁹⁾

상기의 정책적 차원과 더불어 중요한 또 다른 정책은 다소 온건하여 정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 가능한 ‘수피즘(Sufism) 즉 민중이슬람’과 관련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수피즘의 본향(本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당수의 수피 교단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수피즘이란 신비주의 경향과 함께 이슬람 이전의 샤머니즘 등과 결합된 민중이슬람(토착이슬람)을 의미⁶⁰⁾하는데 이슬람교의 관습은 전통 민속신앙과 결합되어 생활습관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수피즘=이슬람’이라는 인식이 카자흐스탄 무슬림 대중들 사이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수피즘의 이같은 속성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소위 와하비파로 통칭되는 급진 이슬람주의자에게는 강성 탄압으로 일관하는 반면, 수피 교단에 대해서는 ‘전통 이슬람’, 또는 ‘온

57) 카자흐스탄의 인종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카자흐(900만, 59%), 러시아인(396만, 25.6%), 우크라이나인(44만, 2.9%), 우즈베크인(43만, 2.9%), 위구르인(23만, 1.5%), 타타르인(22만, 1.5%), 독일인(22만, 1.4%) 등

※한민족(고려인)은 약 10만(0.7%)으로 9번째

58) Al Rise Balaman, “소련 해체 후 강대국의 對중앙아시아 지역패권주의 정책과 국제질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종교와 민족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9권 1호.; 이태욱, “중앙아시아의 정치와 민족문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연구원』, (2006), p. 17에서 재인용.

59) 이은경,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종교적 상생: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의 러시아정교의 동반적 관계의 함의”, 『동북아 문화연구』, 제16집, (2008), p. 798.

60) M. Haghayeghi, "Islam and Politics in Central Asi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p. 77.

건과 이슬람'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교단의 종류⁶¹⁾를 불문하고 수피들은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공히 합법적인 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민족주의와 전통을 신생 민족국가 창출의 기본 이데올로기로 표방하는 나자르바예프 정권에게 있어서 수피즘은 아직은 비정치적이면서 민족 전통의 일부로 인정해도 큰 위협을 주지 않는 온건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새로운 'mosques(이슬람 사원)'를 지어주고 'madrassah'라는 이슬람 학교와 대학교를 세워주었다. 또한 사람들이 'Mecca(과거에 히자스로 알려졌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카 주의 수도이며,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도시)'로 하지⁶²⁾ 때 성지순례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⁶³⁾ 카자흐스탄에서 이슬람이라는 기제는 오히려 현 집권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통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함으로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4장 결론

상기의 논의를 통해 소비에트 연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독립한 카자흐스탄의 장기집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법·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대외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이상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요인들이 현 정권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자 정권의 공고화를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즉 카자흐스탄은 헌법을 통해 상징적인 초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선거법, 정당법의 개정 및 친족 중심의 족벌정치로 인해 집권당인 누르 오탄 당에 대적할 만한 의미있는 야당이 부재한 정치 환경은 장기집권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한 높은 경제성장은 나자르바예프의 장기집권과 관련한 가장 큰 원인이라 판단된다. 풍부한 석유 자원과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로 2007년까지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고도성장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이끌어 내었으며, 국가주도의 '신(新)권위주의 개발독재'를 수공하게 만들었다. 이에 더불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국내·외 강경 및 온건 정책의 적절한 활용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CIS전체 국가들 중 가장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체제로 인정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이슬람국가이면서도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의 폭이 넓어 종교 및 인종 간의 갈등을 겪지 않는 국가이다. 이같은 점이 사회적 원인으로 이어져 현 정권의 장기집권의 배경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소비에트의 하향식 정치문화의 경험과 씨족 정체성, 씨족 공동체, 씨족 정치라는 정치문화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수동성 및 민족 충성도를 특징지었다.

현재까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무리 없이 정권을 유지해왔다. 민주화혁명이라는 인접국의 영향도

61) 중앙아시아 역사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수피 교단으로는 쿠브라위야(kubrawiya), 야사위야(Yasawiya), 호와자상 낙쉬반디아(Khwajagan Naqshbandiya), 카디리아(Qadiriya) 그리고 칼란다리아(Qalandariya)가 대표적이다. 특히 쿠브라위야와 야사위야, 낙쉬반디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만들어져 전 세계 무슬림 지역으로 확대되어 나간 중앙아시아 토착 수피 교단이다. 이 가운데 야사위야의 중심지는 카자흐스탄이었으며 소비에트 정권의 반종교 탄압 당시 카자흐스탄에서 터미로 옮겨가게 된다. 독립한 신생 카자흐스탄 정권에게 있어서 야사위야는 카자흐스탄 민족의 종교적 정통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62) 하지는 신앙 증언, 예배, 단식, 종교세 납부와 함께 이슬람 신자가 실천해야 할 '신앙의 다섯 기둥' 가운데 하나로, 3~5일간 메카의 성지를 순례하며 아라파트산 등정과 돌던지기 의식 등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이슬람력으로 12월 초에 시작되며, 올해의 경우 19~21일이 하지의 절정에 해당한다. 회교 경전, 코란에 따르면, 신체 건강한 이슬람 신자라면 평생 최소 한 번은 하지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이다. 또한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모든 회교도들은 의무적으로 평생에 적어도 한번 하지중에 메카를 순례하도록 되어있다. 실제로는 각국 이슬람 인구의 1% 정도만 실천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ko.wikipedia.org/wiki/%EB%A9%94%EC%B9%B4> 참조.

63) R.James Ferguson, "Kazakhstan: From Exploitation to Nationhood in Central Asia", Eurasia, 2007.

고스란히 빗겨가면서 권위주의적 권력을 잘 다져왔다. 그렇다면 향후 이러한 행보는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상기의 원인들을 유념하면서 현 정권의 향후 행보를 가늠해 볼 때, 당분간은 현 정권에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 이를 테면 2009년 6월 22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집권 20주년을 맞이한 셈인데,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줄곧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후계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장녀 다리가가 유력한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으나 최근의 움직임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종신집권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실례로 지난 9월 누르 오탄당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종신집권 입법을 제안한 바가 있다.⁶⁴⁾ 아울러 10월에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종신 집권은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종신집권에의 야욕을 분명하게 내비쳤다.⁶⁵⁾⁶⁶⁾

요컨대, 나자르바예프의 장기집권 성공은 앞서 논의된 여섯 가지 원인의 복합적인 결과이며, 향후 권력구도의 지속을 위한 장기집권 공고화의 수단이 될 것이다. 다만, 경제적 원인이 권력유지를 위한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상정해 볼 때, 최근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주춤한 경제를 회복하면서 안정된 고도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나자르바예프 장기집권의 변수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봉구, “나자르바예프, 누르술탄 아비셰비치”, 『e-Eurasia저널』, vol.12, (2009.3)
 강봉구, “유라시아 국가들의 권위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e-Eurasia저널』, vol.17, (2008.10)
 김상철, “카자흐스탄 국가 정체성 형성과 특징”, 『e-Eurasia저널』, vol. 11, (2009)
 김일수 외, “중앙아시아의 거인 카자흐스탄”, 서울: 궁리, 2008.3
 김인성, “중앙아시아의 정치체제”, 『한국민족연구원』, (2006).
 김인성,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 분석”,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25집, (2007)
 김일겸, 「카자흐스탄의 정치와 경제」, 학민사, 2009
 김진영, '카자흐스탄', e-Eurasia vol. 20,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박상남, “중앙아시아 정치문화 변동: 정치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中東研究』, 제26권 1호 (2007)
 박창규, “중앙아시아의 정치변동과 권위주의체제”, 『평화연구』, 제14권 2호(2006년 가을)
 손영훈, “카작 칸국(15-18C)의 사회구조: 유목사회 봉건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1997
 유재형,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3선 성공의 의의와 전망”, 『수은해외경제』, 2006.1
 이혜정 · 박지범, “카자흐스탄 권위주의의 길”, 『中蘇研究』, 제33권 제2호, (2009 여름)
 이채문, “그루지아의 장미혁명과 수출용혁명론”, 『대한정치학회보』, 14집 3호, (2007.2)
 이경희, “중앙아시아 지정학의 변화와 정체성”, 『中東研究』, 제26권 1호, (2007)
 안상훈, “카자흐스탄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5, p. 8.

64) RFE/RL, Kazakh Party Proposes Presidency-For-Life For Nazarbaev, 2009. 09. 14, http://www.rferl.org/content/Kazakh_Party_Proposes_PresidencyForLife_For_Nazarbaev/1822517.html (검색일: 2009. 10. 27)

65) RFE/RL, Nazarbaev Says Presidency-For-Life Defined By Kazakh Constitution, 2009. 10. 6, http://www.rferl.org/content/Nazarbaev_Says_PresidencyForLife_Defined_By_Kazakh_Constitution/1844932.html (검색일: 2009. 10. 27)

66) 이러한 누르 오탄 당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종신 집권을 위한 '국가 지도자에 관한 법'(a law on the leader of the nation) 입법 움직임에 대해 사회민주당의 자르마칸 투야크바이 총재는 이미 지난 헌법 개정으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무한정 연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굳이 입법화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였다.

- 이은경,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종교적 상생: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의 러시아정교의 동반적 관계의 함의”, 『동북아 문화연구』, 제16집, (2008)
- 이홍섭, “러시아의 초대통령중심제: 등장배경, 성격 및 파급효과”, 『국제정치논집』, 제41집 2호(2001)
- 이태욱, “중앙아시아의 정치와 민족문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연구원』, (2006).
- 정세진,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 건설과 민족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 정체성 특성에 고나한 소고”, 『e-Eurasia저널』, vol.14, (2009.5),
- 카자흐스탄 개황”, 『외교통상부』, 2008.12
-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서울: 퍼네기, (1997)
- 최소영, “이문화(異文化)관리”, 국제지역정보, 2003, PP. 74-75.
- Lijphart Arend, “Parliamentary versus Presidential Gover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조해경 역, “내각제와 대통령제”, 『서울: 이진출판사』 (1999)
- Anthony Clive Bowyer, "Parliament and Political Parties in Kazakhstan", Silk Road Paper(2008)
- Azhar Kusainova and Gregory Gleason, 'Constitutional reform and regional politics in Kazakstan', Nationalities Papers, Vol. 26, No. 3
- Barbara Junisbai·Azamat Junisbai, "The Democratic Choice of Kazakhstan: A Case Study in Economic Liberalization, Intraelite Cleavage, and Political Opposition", Demokratizatsiya (2005)
- Chaimun Lee, "Languages and Ethnic Politics in Central Asia: The Case of Kazakhst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UME 11, Number 1, 2004
- Juan J. Linz, "An Authoritarian Regime: Spain", in Mass Politics, ed. S. Pokkan(New York: Free Press, 1970)
- Michael McFaul, "Political Transitions: Democracy and the Former Soviet Union,"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28-1(Spring 2006)
- M. Haghayeghi, "Islam and Politics in Central Asi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 Nurbulat E. Masanov, "The role of clans in Kazakhstan today", Jamestown Foundation, Prism Volume: 4 Issue: 3, February 6, 1998
- Kathleen Collins, "Clan Politics and Regime Transition in Central Asia", Cambridge, New York, 2006, p. 21
- H.B Paksoy, "S.V. Togan: the Origins of the Kazaks and the Ozbek", Central Asian Survey (Vol.11, No.3, 1992)
- Sally N. Cummings, 'Understanding Politics in Kazakhstan', www.demstar.dk, 2002
- T.W.Adorno,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0)
- Лаумулин М.Т(1997).Казахстан и Европей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 Казахстан-Спектр. -Алматы, No1-2
- Eurasianet.org, "Kazakhstan: Nazarbayev President-For-Life Trial Balloon Draws Lots Of Darts", 2009.9.24일(검색일: 2009.10.22)
-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b/articles/eav092409.shtml>
- RFE/RL, Kazakh Party Proposes Presidency-For-Life For Nazarbaev, 2009. 09. 14, http://www.rferl.org/content/Kazakh_Party_Proposes_PresidencyForLife_For_Nazarbaev/1822

517.html (검색일: 2009. 10. 27)

RFE/RL, Nazarbaev Says Presidency-For-Life Defined By Kazakh Constitution, 2009. 10. 6,
http://www.rferl.org/content/Nazarbaev_Says_PresidencyForLife_Defined_By_Kazakh_Constitution_/1844932.html (검색일: 2009. 10. 27)

카자흐스탄뉴스, “북카자흐스탄주에 등록된 비정부기구 200개 넘어, 2009.8.27일 기사(검색일: 2009.10.19)

<http://blog.naver.com/almatykim?Redirect=Log&logNo=150068466973>

경향신문, “우즈벡에 이어 카자흐스탄도 종신집권 개헌 추진”, 2009.9.15일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151803175&code=970207

수은해외경제,

<http://www.kiet.go.kr/servlet/isearch?mode=brief&catCode=&natCode=KAZ&induCode=USA&single=all&keyword=%EC%A4%91%EA%B5%AD&fromDate=&toDate=&fromDate1=&toDate1=&sortFld=1&sortMod=1>(검색일: 2009. 10. 25)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kr2/index.jsp>

http://en.wikipedia.org/wiki/The_Authoritarian_Personality(검색일: 2009. 10. 22)

<http://en.wikipedia.org/wiki/Majilis> (검색일: 2009.10.26)

http://www.english.wayne.edu/fac_pages/ewatten/pdfs/adorno.pdf(검색일: 2009. 10. 22)

<http://www.kazembassy.org.uk/ambassador.html>(검색일: 2009. 10. 22)

<http://ko.wikipedia.org/wiki/%EB%A9%94%EC%B9%B4>(검색일: 2009. 11. 27)